


공동체 소식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성자를 온 누리의 임금으로 세우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셨으니, 모든 피조물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섬기며, 끝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11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 대축일(추수 감사미사)

-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상 끝날에 '만왕의 왕'으로서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한편 믿는 이들 안에서는 이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추수 감사절' 본 날은 11/24(목)이지만, 오늘 미사에 추수감사의 뜻을 담아 봉헌합니다.

11월은 '위령의 달' 입니다.

- 위령의 날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도록 기도하는 날입니다.

대림시기 안내

- 다음 주일(11/27)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와, 대림 시기의 시작입니다.
- 전례안내: 대림시기 동안, 대축일미사를 제외한 미사 전례 중에 '대영광송'은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신비 여'는 '나'양식과, 성가 373번 2절로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 내용: 소공동체 봉사자인 반장의 주요임무는 반소속 가정들과의 연락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별로 모임 날짜를 정하고, 반별 형편에 따라 모임을 진행바랍니다.

구역장 반장 회의 [일시: 11/27 (주일)]

- 본당대청소 후, 본당 나자렛관
- 대상: 소공동체 봉사자 (구역장, 반장)

본당 대청소 [일시: 대림 제1주일, 11/27]

- 청소구역: 여성-실내(성당, 지하)청소, 남성-실외(성당주위, 주차장)청소.
- ※ 각자 청소도구(비자루, 쓰레받기, 갈퀴, 손걸레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주일은 미사 후, 20분 정도 대청소를 실시한 후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73	219	174	7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
	김정원 안젤라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최은미 아녜스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녜스

애찬 봉사자

금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1/13	68명	323불	850불
이영민, 홍순익, 류기범, 김대연, 김정원, 문석찬, 이내익 (총 7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0불, 총합계: 6,100불		

교무금과 건축보수기금의 완납을 위해 성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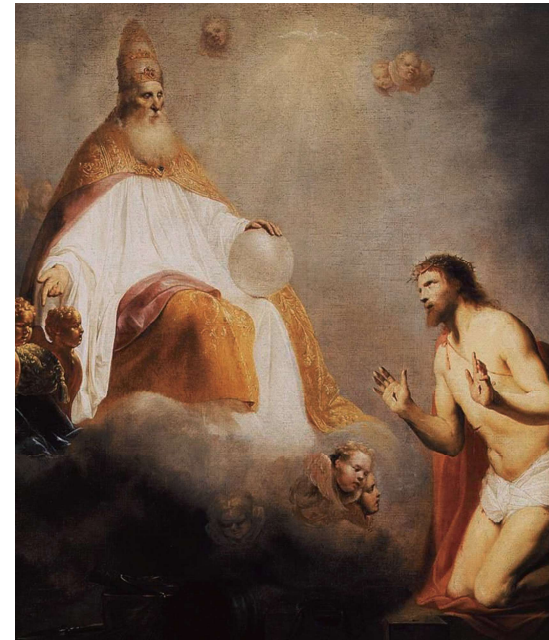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부르시어 정의와 사랑으로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아드님의 발자취를 따라 형제애로 우리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 내어 놓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연중 마지막 주간인 이 성서 주간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성화해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당신 오른편에 앉히시다.

(피에테르 데 그레베레, 1645년, 위트레흐트 국립박물관, 네덜란드)

예수님께서서는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내시며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원천인 십자가에서 생명의 백성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생명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생명의 복음」 51항 참조) 이를 통해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향하여 다시 서게 될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5,1-3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

○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좌, 다윗 집안의 왕좌가 놓여 있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12-20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3,35-43

<주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쉐 마

참된 임금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창조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아버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세상 만물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뜻 자체이심을,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뜻을 말과 행적으로 온전히 드러내시기에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신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들이자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만물의 임금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전해 줍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당신 백성에게 기꺼이 조롱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만물의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만물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느님과 단절된 세상이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느님의 아들, 곧 하느님께서 직접 십자가 상 죽음을 통해 그들의 죄를 대신 기워 갚으심으로써 온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하느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었고, 세상 창조 때부터 진행되었던 하느님의 계획이 온전히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

가는 임금이신 하느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 달리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나라이며, 거기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자 만군의 임금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권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모두를 위해 철저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만군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나도 그분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이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것과 임금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하느님, 재림 예수, 보혜사, 곧 성령이라고 자칭하며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임금처럼 살아가기까지 합니다. 자기 목숨마저 내어놓으며 만물을 하느님과 화해시키고자 하신 예수님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가르친다면 조금은 받아들여 볼 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임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아서 다시 한 번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임금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 덕택에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세상이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가 기억하고 다짐해야 할 내용입니다

- 영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의로운 사람,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회) 의원 중에서도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란 유대인의 최고 기관으로 재판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평민 가문의 원로들로 구성되어 백성들의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있던 터에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드러나지 않게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열두 제자의 명단 속에는 없지만 성경에서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어디입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 27,4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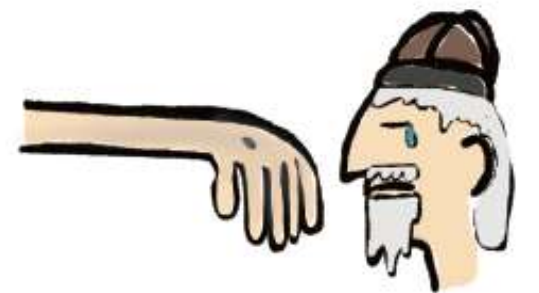
제자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마음과 정신과 생활까지 본받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주위의 평판이 좋은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 사형선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갈등을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누구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28-38

요셉은 사람을 시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게 했습니다. 시신이 내려지자 제일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주위의 남아있는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가지고 간 고운 아마포로 예수님을 감싼 다음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39-42

사형수의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요셉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가버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켰던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약속과 신의를 휴지 조각처럼 버리는 세태 속에서 더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누구는 살려달라고
임금을 시키니
백성을 죽이고

누구는
임금을 만들어 준다 하니
백성을 위해서 죽네

누구는
공평히 나누어 달라고
주머니에 모아주었더니
주머니를 숨기고

우리의 임금

누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해도
자기 목숨을 내놓네

누가 진정한
우리의 임금인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루카 23,38)

